

## 워싱턴-버지니아 지역 동창회 송년회

11 월 16 일 워싱턴 버지니아 지역 우리 동창회 송년 모임이 우래옥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동창 24 명과 부인 11 명 총 35 명이 모여서 선후배간의 인사와 따뜻한 정을 나누었다.

1957 년 졸업한 최연장자이신 임종식 선배님과 최연소 2009 년졸업 후 하이텍 사업가 송경민과 2 년 전에 도미한 하워드 휴즈 연구소 에서 근무하는 신경과 전문의 2008 년 졸업 김도형 그리고 Inova Hospital Melanoma 전문의인 2001 년 졸업 장세권 동창회 GP Chair 가 한자리에 모여 대화의 꽃을 피운 것은 물론 여러 동문들이 각 테이블마다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게 덕담을 나누었다.

주광국 사회와 신용계 재부 보고에 이어 서윤석의 동창회 관련 소식 설명이 있었다. 특히 신찬수 학장이 우리 버지니아 Chapter 로 이만택(58) 님을 통하여 보내온 교기에 대한 감사의 뜻을 모았다. 내년 봄 벚꽃 시절인 4 월 2 일-5 일에 있을 Medical Science Convention 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모두들 이성길 회장단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37 차 학술대회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자기소개 시간, 식사, 기념 촬영, 주광국 사회자의 한국 대학신입생 입학제도 설명과 우리 서울의대 후배들이 근래에는 제일 들어가기 힘든 대학에 입학한 사람임을 설명했다. 이어서 고급 농담이 있었다. 아울러 서윤석은 "평시조"의 역사에 대하여 컬럼버스가 America 대륙을 발견하기 46 년 전인 1446 년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하기 전에는 고려 말기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온 것을 후세에 한글로 기록한 것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봄 Convention NonCME 에서 시조 짓기대회가 있을 것이고 상금이 걸려있으니 작품을 준비 하라고 귀뜸을 했으며 참고로 황진이, 정몽주, 이방원의 시조를 소개했다. 식사는 냉면, 육개장, 우거지갈비탕, 갈비탕, 후식으로 과일 떡 커피 등으로 푸짐했다.

참석한 동문은 임종식(57 졸업), 이종국(58), 이종수(59), 한달수(59), 나길진(59), 임낙중(59), 김용덕(59), 진창건(61), 이중오(64), 채무원(65), 김진수(66), 이동명(66), 신용계(68), 김주평(68), 서윤석(68), 주광국(68), 김희주(68) 조병선(71), 박동수(71), 유영준(74), 박인영(75), 장세권(2001), 김도형(2008), 송경민(2009) 24 명이었고 참석한 배우자는 미세스 이종국, 한달수, 나길진, 이중오, 이동명, 서윤석, 김희주, 주광국, 신용계, 김주평, 조병선 11 명을 합하여 총 35 명이 참석했다. 내년 1 월 23 일 신년회가 있음을 예고하고 회의를 마쳤다.

글과 사진; 편집인





